

가톨릭제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소공동체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2024년 6월 30일 [제2454호]

편집·발행 : 천주교 제주교구 사무처
catholic-cheju@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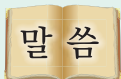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르5,34)

한림성당 가톨릭 제주교구사진가회

6316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8길 14 <http://www.diocesejeju.or.kr>

사무처 729-9500 / 관리국 729-9502 / 복음화실 729-9501 / 선교사목위원회 729-9501 / 성서사도직 729-9503, FAX 729-9514
청소년사목위원회 729-9507, FAX 729-9516 / 가정사목위원회 729-9599, FAX 729-9598 / 참사랑가정상담소·교회법원 729-9509
사회사목위원회 729-9510 / 사회복지위원회 729-9511 / 성소위원회 729-9506 / 이주사목위원회 725-9199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사회사목 · 이주사목위원장
양용석 바오로 신부



오늘 복음에서는 두 가지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열두 해 동안이나 하혈하던 여자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어 병이 낫게 됩니다.

이 여자는 열두 해 동안이나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도 고치지 못했던 병이 단 한 순간 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병을 고치는 데 모두 써서 가진 것조차 아무것도 없던 절망의 순간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사회에서 소외와 멸시를 당했던 여인의 사회적 위치도 되돌려 주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인의 믿음과 용기는 그녀에게 육체와 정신의 회복과 더불어 사회적인 회복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회당장의 마음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가서서 딸의 병을 고쳐주셔야 하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는 데에 시간을 쓰고 계셨고, 그럴수록 회당장의 속은 타들어 갔을 것입니다. 결국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회당장은 마지막 희망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딸의 손을 잡으시고 “탈리타 쿴!”이라는 말씀으로 그 소녀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 두 치유 사건의 공통점은 절망스러운 상황을 믿음을 통해 이겨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게 되고,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해 지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겸손의 열매이고 겸손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사회사목과 이주사목을 담당하면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사회사목위원회로, 나오미센터로 연락하거나 찾아옵니다.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모든 요청에 응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함께해 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힘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자만을 버리고 그분께 의탁한다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일어나라!”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화 | 답 | 송 |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주 - 님, 저 를 구 하 셧 으 니 당 신 을 높 이 기 러 나 이 다

I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제2회기 준비를 위한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 (4) I

축성 생활

21. 이번 시노드 과정에서 남녀 수도회와 수도자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각 교구에서 보내온 의견서에서도 축성 생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소수 의견에서는 성직자와 수도자 모두 소통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였고, 교회 내에서 여성 수도자에 대한 불평등과 존중 부족이 여전하다는 증언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수녀회 안에서 전례 거행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성 수도자의 전례 거행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수도자들의 사도직 수행과 관련해서는 과거와 달리 본당 운영 체계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도직을 실천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교구 차원에서 이들에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도직을 지원할 것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의 사제와 주교

22.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성직주의는 다양한 교구의 의견서들을 통해 전해졌다. 의사 결정 과정이 성직자 중심적이고, 교회 운영 방식이 관료적이며, 성직자에 대한 책임 면제가 관행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제와 평신도의 인격적이고 사목적인 관계가 약화되는 가운데, 평신도들이 성직자를 냉소적으로 대하고 직업인으로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직주의는 사제 공동체 안에서도 일방적인 상명하복의 위계를 강조하여 소통과 만남을 방해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일부 수도자와 평신도들에게서도 확인된다. 봉사 직분을 권력으로 여기고 교회를 자기 과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과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교구 의견은 밝히고 있다.

23. 이번 시노드 과정에서 강조해 온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제들의 직무 수행을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으로 이러한 요청과 제안은 성직자들이 친교와 섬김의 봉사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독려한다는 점에서 신선하지만,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견해도 일부 있었다. 곧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이러한 관계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 기구와 제도를 운용한다면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회 내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직무 수행 방식과 결과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점검 절차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24. 사제들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교구 사제단의 공동 책임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사제가 직무 수행에서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 이는 사목의 편향성, 사목적 열의의 고갈, 사목자의 정서적 고립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사제 공동체가 이루는 사목에 대한 논의, 상호 조언, 협력이 필요하다. 사제 상호 간, 교구청 부서와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들 간에, 주교와 사제들 간에 상호 협력이 더욱 증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하나의 시도로 지구 사제 모임의 활성화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또한, 관심 주제에 따른 사제들의 소모임을 구성하여 나눔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에 교구청에서 소임 하는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 협력자를 초대해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델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25. 주교는 교구의 전체적인 사목 방향 설정, 평신도·수도자·사제의 시노달리타스 참여, 교구 내 참여 조직의 운영 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주교 자신이 직접 시노달리타스 영성을 살아가고, 모든 영역에서 시노드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열정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모든 이의 아버지'이며 '주교직의 성사적 본성'(제1회기 「종합 보고서」, 12항 4) 참조)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교는 정기적인 사목 방문과 현장 체험으로 공동체의 사목 현실을 직접 접하면서 사목 일꾼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주교가 관할 지역을 순회하면서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을 하고 사제 및 평신도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는 사례도 있었다. 이를 통해 행정적인 성격이 아니라 영적이고 대화 지향적인 만남, 덜 관료적이고 더 관계적인 만남의 자리를 만들 수 있다.

〈계속 이어집니다〉 출처: @CBCCK

베드로 성금

베드로 성금의 현황

베드로 성금은 신자들이 성 베드로 직무의 후계자에게 도움을 주는 형태라는 사실에 역대 교황님들께서는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직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 특히 전교 지역 국가들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요구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민족들과 개인들과 가정들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지원을 사도좌에게서 받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드로 성금은 복음화 사업에 참되고 올바르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편 교회의 관심사를 구체적으로 함께 나눈다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에 그러합니다”(요한 바오로 2세, ‘St Peter’s Circle’ 회원들에게 한 연설, 2003.2.28.).

신자들이 교황 성하에게 바치는 헌금은 교회 활동과 인도주의적 사업과 사회 발전 사업과 성좌 활동 지원에 사용됩니다. 교회 전체의 목자이신 교황님께서는 가난한 교구와 수도회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신자들의 물질적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또한 교황님께서는 가난한 이, 어린이, 노인, 소외된 이, 전쟁과 자연재해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밖에 어려움에 놓인 주교와 교구에 대한 실질적 원조, 가톨릭 교육, 이민과 난민 돕기에 도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베드로 성금에 영감을 준 일반적 기준은 초기 교회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사도와 지원의 주요 원천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와 선의의 사람들이 기꺼이 내어 준 봉헌이어야 합니다. 이는 복음에 기록된 전통(루카 10,7 참조)과 사도들의 가르침(1코린 9,11-14 참조)에 부합되는 것입니다”(요한 바오로 2세, 국무원 총리 추기경에게 보낸 서한, 1982.11.20.).

교황님께서 다른 이들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교황님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기부는 아무리 적을지라도 소중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는 오랜 관습

복음 선포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사도적 사명을 수행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관행은 그리스도교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사도 4,34; 11,29 참조).

8세기 말, 앵글로색슨들은 로마의 주교와 너무나 친밀한 연대를 느꼈기에 교황 성하께 매년 정기적으로 헌금을 바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베드로 성금(Denarius Sancti Petri)의 기원이 되었고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관행은 같은 형태의 다른 관행처럼 오랜 세월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비오 9세 교황님께서 1871년 8월 5일에 반포하신 회칙 Saepe Venerabilis를 통하여 이를 승인하셨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이 베드로 성금을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이나 이 대축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에 봉헌하고 있습니다.

제6회 제주, 기쁨과 희망 포럼

2024 환대와 평화의 제주 공동체 2차 포럼



- 주제 | 신뢰와 공감의 만드는 평화와 정의
- 일시 | 7월 6일(토) 오후 2~4시 제주소통협력센터 5층 다목적홀
- 진행 | 김종현 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
- 일정 | 강연1. 평화의 말로 온전한 환대를 (이윤정, 국내 1호 비폭력대화 국제공인 트레이너)
강연2. 4:3과 회복적 정의 (한상희, 서귀포여중 교감, 4:3이 나에게 건넨 말 저자)
- 대상 | 사제, 수도자, 교구평협, 본당 총회장 및 사목회 임원, 관심있는 신자 및 제주도민 누구나
- 문의 | 064-729-9510 사회사목위원회
※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바랍니다.

교황 주일 2차 헌금: 6.30(오늘)

상설 고해소

- 일시: 7.1(월) 오후 2시/ 가톨릭회관 2층 소성당
- 고해사제: 현요안 요한 신부(복음화실장)

축! 본당의 날

- 서귀복자본당: 7.5(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축! 영명

- 양명현 신부: 7.3(수) 성 토마스 사도 축일
- 부영호, 류충렬, 정진환 신부: 7.5(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첫 토요일 신심미사

- 일시: 7.6(토) 밤 9시/ 삼위일체성당
- 담당: 김기량성당, 서문성당, 금악성당, 효돈성당

장애인 가족과 환자 가족을 위한 “사랑의 종소리 미사”

- 일시: 7.7(주일) 오후 3시/ 광양성당

주교좌성당 봉헌 축일 미사: 7.2(화) 오후 7시 30분

- 집전: 문창우 비오 주교
- 특전: 교황 강복, 전대사

교육·제 단체·기타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연합 쉼 및 첫 토요일신심미사 특강

- 일시: 7월 7일(주일) 오전 10시~12시 30분
- 장소: 가톨릭회관 강당/ 강사: 고승건 미카엘 신부
- 문의: 010-8660-3378

청년연합회 정기회의

- 일시: 7월 1일(월) 오후 8시/ 조천성당 교육관
- 대상: 각 본당 2024년도 청년회 임원(최소 2명은 참석)

청년성서모임 SHEMA 파스카 예식

- 일시: 7월 11일(목) 오후 8시~9시 30분
- 장소: 가톨릭회관 2층 강당
- 대상: 탈출기 그룹 공부를 마쳤거나 올해 마칠 예정인 청년, 그 외 관심 있는 모든 청년
- 신청: 7월 2일(화)까지
셰마 공식 인스타그램(@shema_jeju) 프로필 링크 신청
- 문의: 729-9507 청소년사목위원회

제주ME 125차 주말

- 일시: 7월 26일(금)~28(주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 신청문의: 김태선 요한 010-6864-1515
고승희 글라라 010-2698-8731

제주청년성서모임 SHEMA 제주 20차·탈출기 5차 연수 참가자 모집

- 일시: 8월 8일(목) 오후 6시~11일(주일) 오후 4시/ 3박 4일
- 장소: 성 이시돌 피정의 집
- 대상: 탈출기 그룹 공부를 완료한(또는 연수 전까지 완료 예정인) 만 40세 이하 청년
- 신청: 7월 9일(화)까지 청소년사목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그룹웨어
- 문의: 729-9507 청소년사목위원회

국민연금공단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상담

- 대상: 제주시 거주 2명
- 일시: 7월 10일(수) 오전 10시~12시
- 장소: 제주시가족센터 3층 상담실(중앙로 14길 15)
- 내용: 노후준비진단을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종합상담
- 문의: 064-725-8025

현해관(교구사제관) 직원모집

- 채용인원 및 업무: 1명/ 주방 및 청소
- 제출: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당신부 추천서, 운전면허증 사본
- 접수: 7월 2일(화)까지/ 교구청 사무처 직접 방문 제출
- 문의: 729-9500 사무처

성이시돌요양원 간호사 채용

- 접수: 직접방문 및 우편, 전자우편, 팩스
- 제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허증 사본
- 문의: 796-0037, 7037/ fax.796-8037

베트남 성지순례 모집 안내

- 장소: 다낭, 호이안, 라방 성모님 발현지 등
- 일정: 9월 30일(월)~10월 4일(금), 3박 5일
- 비용: 147만원 예상
- 마감: 40명 선착순(타본당 신청가능)
- 문의: 화순성당 사무실(064-794-0483)

성지순례 참가자 모집

- 성 프란치스코와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 일정: 10월 22일(화)~11월3일(주일) 11박 13일
- 장소: 이탈리아, 터키
- 비용: 5,590,000원(30명)
- 담당사제: 영보 신부
(재속프란치스코회 제주지구 안토니오 형제회)
- 신청문의: 010-9633-7741

성지순례 참가자 모집(선착순 30명)

- 장소: 보스니아(메주고리예),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 일시: 9월 23일~10월 3일(10박 11일)
- 참가비: 535만원
- 주관: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 담당 사제: 임문철 시몬 신부
- 신청문의: 010-2307-1485, 010-8660-3378

전국 167곳, 일본, 마카오 성지순례

전국 167곳: 2박 3일 36만원
베트남, 마카오, 북해도, 야기타,
도쿄, 오사카: 각 3박 4일 120만원
마르코투어 ☎ 010-4239-1929

중 앙

주임신부 김석주 베드로 보좌신부 이건용 토마스 아퀴나스
사무실 753-2271 Fax.756-5533

- 사목평의회: 30일(오늘) 교중미사 후
- 병자 영성체: 7월 5일(금) 오전 8시 30분
- 7월 전대사 미사
성체신심미사: 7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성모신심미사: 7월 6일(토) 오전 6시 30분
- 125주년 예비자 입교식: 7월 7일(주일) 오전 10시 30분
- 기도의 해 '성체 신심 세미나'
7월 9일(화)~12일(금) 오후 7시/ 서울대교구 성령 봉사팀
대상: 희망하는 모든 교우(타본당 가능)/ 회비: 2만원
신청: 7월 7일(주일)까지 사무실
- 성체 현시, 자비의 5단 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1층 자비의 경당

동 문

주임신부 남승택 가브리엘 보좌신부 라치현 다비드
사무실 757-8866 Fax.756-5534

- 2024년 100일 선교 활동: 6월 17일(월)~9월 24일(화)
- 레지오미사: 7월 2일(화) 오후 7시 30분
- 늘푸른대학: 7월 4일(목) 오전 11시
- 병자 영성체: 7월 5일(금) 오전 9시 30분
- 성시간 및 성체강복: 7월 5일(금) 저녁미사 후
- 소공동체협의회: 7월 5일(금) 성시간 후
- 초등부 신앙학교: 7월 6일(토)~7일(주일)
- 받아들이는 예식: 7월 7일(주일) 교중미사 중

화 북

주임신부 강형민 다니엘 보좌신부 홍훈표 이시돌
사무실 756-6004 Fax.726-6003

- 성시간: 7월 4일(목) 오후 7시 30분
- 병자 영성체: 7월 5일(금) 오전 9시
-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고학년(3~6학년): 7월 5일(금)~6일(토)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저학년(유치부~2학년): 7월 13일(토) 화북성당
- 레지오 미사: 7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 첫 토요일 신심미사: 7월 6일(토) 오전 6시 30분
- 본당 환경보호의 날: 7월 7일(주일) 매 미사 전 영상교육
- 교구장 본당 방문 미사: 7월 7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조 천

주임신부 현문일 도미니코
사무실 784-6173 Fax.784-6688

- 병자 영성체: 7월 4일(목) 오전 9시 30분
- 성시간 및 성체강복: 7월 4일(목) 오후 7시 30분
- 소공동체협의회: 7월 4일(목) 오후 6시 30분

김 녕

주임신부 양요왕 요한
사무실 783-4320 Fax.784-4320

- 성시간·성체강복: 7월 4일(목) 오후 7시 30분 미사
- 병자 영성체: 7월 5일(금) 오전 10시 30분
- 성소후원회 미사: 7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 세례자 첫 고해성사: 7월 6일(토) 오후 7시
- 첫영성체 교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소공동체 모임: 7월 11일(목)

세 화

주임신부 김해인 파트리치오
사무실 782-1773

- 미사시간 안내
월요일: 오전 6시 30분/ 화·수·금: 오후 7시 30분
목요일: 오전 10시(첫째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주일 저녁미사: 오후 7시 30분
주일: 오전 8시 30분, 11시(교중)
- 본당 홈페이지 안내: 네이버 카페 검색 "세화성당"
- 본당 건축기금 계좌번호
농협 351-1188-2488-13 천주교제주교구세화성당

동 광

주임신부 윤성남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보좌신부 허준혁 요셉
사무실 721-9911 Fax.721-9914

- 사목평의회: 30일(오늘) 교중미사 후
- 병자 영성체: 7월 5일(금) 오전 10시
- 소공동체 감사미사·성시간: 7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 소공동체협의회: 7월 5일(금) 성시간 후
- 첫 토요일 신심미사: 7월 6일(토) 오전 6시 30분
- 초등부 주일학교 여름신앙학교: 7월 6일(토)~7일(주일)
- 제분과위원회: 7월 7일(주일) 오전 9시 30분
- 여성연합회: 7월 7일 교중미사 후

김 기 랑

주임신부 황태종 요셉
사무실 722-8866 Fax.722-8867

- 사목평의회: 30일(오늘) 교중미사 후
- 기도(전례 신심) 강의: 30일(오늘) 오후 2시~4시
- 본당 성소후원회 미사: 7월 4일(목) 오후 7시 30분
- 성시간 및 성체강복: 7월 4일(목)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 첫 영성체 가정교리: 7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 전례위원회: 7월 6일(토) 저녁미사 후

광양작한목자

주임신부 허찬란 임마누엘
사무실 753-4498 Fax.756-5535

- 예비신자 보내성지순례: 30일(오늘) 오전 9시 미사 후
- 소공동체 월례회의: 7월 4일(목) 오후 6시 30분
- 병자 영성체: 7월 5일(금) 오전 9시부터
- 원요한 신부 30주기: 7월 7일(주일) 미사 봉헌
- 울뜨레야: 7월 7일(주일) 오전 10시

서 문

주임신부 고남일 요셉
사무실 753-2979 Fax.756-5536

-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30일(오늘) 오전 9시
- 사목평의회: 30일(오늘) 오전 11시 40분/ 청소년의 방
- 성소후원회를 위한 미사: 7월 2일(화) 오후 7시 30분
- 레지오 단원을 위한 미사: 7월 3일(수) 오후 7시 30분
- 성시간, 성체강복: 7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 예비자 환영식: 7월 7일(주일) 오전 10시 교중미사 중

신 제 주

주임신부 고병수 요한 보좌신부 고승건 미카엘
사무실 742-4678 Fax.743-2727

-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전체 모임: 30일(오늘) 교중미사 후
- 견진 신청자 첫모임: 30일(오늘) 교중미사 후
- 병자 영성체: 7월 2일(화) 오전
- 레지오미사: 7월 3일(수) 오후 7시 30분
- 성체신심미사. 성시간성체강복: 7월 4일(목) 오후 7시 30분
- 성모신심미사: 7월 6일(토) 오전 6시 30분
- 50주년 건축기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 신제주성당)
신협 131-021-188836/ 농협 301-0299-6388-61
제주 39-01-058615

노 형

주임신부 양영수 베드로 보좌신부 설교빈 가브리엘
사무실 742-9122 Fax.742-9124

- 병자 영성체: 7월 5일(금) 오전 10시 30분
- 성시간 및 성체강복 : 7월 5일(금) 저녁미사 후
- 성모신심미사 : 7월 6일(토) 오전 6시 30분
- 유아세례: 7월 7일(주일) 오전 10시 30분
- 어린이 주일학교 여름 신앙학교: 7월 13일(토)~14(주일)
- 예비신자 환영식: 7월 14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연 동

주임신부 현경훈 미카엘
사무실 744-7811 Fax.743-8004

- 초중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30일(오늘)

정 난 주

주임신부 임문철 시몬
집무실 743-0892 사무실 743-0893 Fax.712-0057

- 병자 영성체: 7월 5일(금) 오전 10시
- 성시간 및 성체강복: 7월 5일(금) 저녁미사 후
- 첫 토요일 신심미사: 7월 6일(토) 오전 6시 30분
- 사목평의회: 7월 12일(금) 저녁미사 후

하 귀

주임신부 김영태 베네딕도
사무실 713-9001 Fax.713-2106

- 본당 생태 환경 월별 실천 사항
7월: 의식적으로 하루 육식 안하기
실천 상품: 비건 치실
- 병자 영성체: 7월 5일(금) 오전 10시
- 성시간·성체강복: 7월 5일(금) 저녁미사 후

- 주임 신부님 영명 축일 국수 나눔: 7월 7일(주일)
- 첫영성체 가족 피정: 7월 13일(토) 오전 10시~오후 2시

애 일

주임신부 현문권 토마스 아퀴나스
사무실 799-0026 Fax.799-0079

- 예비신자 교리교사회: 7월 2일(화) 저녁미사 후
- 소공동체협의회: 7월 3일(수) 오후 6시
- 성시간 및 성체강복: 7월 4일(목) 오후 7시 30분
- 성수 축복 예식: 7월 7일(주일) 교중미사 중
- 사목평의회: 7월 7일(주일) 교중미사 후
- 건축기금 계좌번호(예금주: 천주교 애월성당)
신협 131-015-936897

한 림

주임신부 최현철 안드레아
사무실 796-4044 Fax.796-1044

- 서부지구 레지오 단원교육
30일(오늘) 오후 2시~5시/ 한림성당
- 병자 영성체: 7월 4일(목), 5일(금) 오전 9시부터
- 첫 목요일 미사 및 성시간: 7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 울뜨레야: 7월 5일(금) 성시간 후
- 예비신자 도유식: 7월 7일(주일) 교중미사 중
- 꼬미씨움: 7월 7일(주일) 오후 2시

금 약

주임신부 이어돈 미카엘
사무실 796-4188 Fax.796-4196

- 미사 시간 안내
평일미사: 월/금/토 오전 7시, 화/수/목 낮 12시
주일미사: 주일 오전 11시(교중)

신 창

주임신부 김선용 토마스 아퀴나스
사무실 773-1044 Fax.772-4044

- 레지오 단원들을 위한미사: 7월 3일(수) 오후 7시 30분
- 병자 영성체: 7월 5일(금) 오전 9시
- 성시간 및 성체강복: 7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 본당 시설 유지, 보수 기금 모금
351-1056-1309-73 농협 (예금주: 천주교 신창성당)

고 산

주임신부 현성호 토마스 아퀴나스
사무실 773-2004 Fax.773-0140

- 모든 레지오 단원을 위한 미사: 7월 2일(화) 오후 7시 30분
- 병자 영성체: 7월 4일(목) 오전 9시
- 모든 병자를 위한 미사: 7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미사

모 슬 포

주임신부 송승진 요한
사무실 794-2074 Fax.794-0409

- 대정성지 환경정비: 30일(오늘) 오후 2시
- 성시간 및 성체강복: 7월 4일(목) 저녁미사 후
- 첫 토요일 신심미사: 7월 6일(토) 오전 6시 30분

- 솔로몬대학: 7월 7일(주일) 오후 1시
- 국수 나눔: 7월 7일(주일) 교중미사 후

화 순

주임신부 김석순 마태오
사무실 794-0483 Fax.794-0481

- 성소자들을 위한 미사 및 기도모임
7월 2일(화) 오후 7시 30분 미사
- 성시간 및 성체강복: 7월 5일(금) 저녁미사 후
- 소공동체 협의회: 7월 5일(금) 저녁미사 후
- 성수축복: 7월 7일(주일) 교중미사 중
- 베트남 성지 순례 모집: 9월 30일(월)~10월 4일(금)
3박 5일, 다낭, 호이안 등(타본당 신청가능)
- 성전기금: 농협 351-1201-0188-53

중 문

주임신부 이시우 안드레아
사무실 738-6123 Fax.738-6122

- 매월 첫째 주일 4·3 위령, 연도: 교중미사 전
-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성경통독(5)~5권(합 33권)
애가, 에페소서, 아모스서, 예즈라기, 즈카르야서-잡언5장
- 울뜨레야: 7월 3일(수) 저녁미사 후
- 성시간 및 성체강복: 7월 5일(금) 저녁미사 후
- 빈첸시오회: 7월 5일(금) 저녁미사 후
- 교리봉사자회의: 7월 5일(금) 저녁미사 후
- 청소년사목위원회: 7월 6일(토) 오후 6시
- 건축기금
농협 351-0936-6545-53(천주교제주교구 중문성당)

서귀포

주임신부 임남용 라파엘
사무실 762-3444 Fax.733-5551

- 소공동체협의회 야외행사: 30일(오늘) 교중미사 후
- 소공동체협의회: 7월 2일(화) 저녁미사 후
- 성체현시 및 성체강복: 7월 5일(금) 오전 10시
- 병자 영성체: 7월 5일(금) 오전 10시
- 첫 토요일 신심미사: 7월 6일(토) 오전 10시

서귀북자

주임신부 송동림 레오
사무실 733-5523 Fax.733-5552

- 54주년 본당의 날 행사: 30일(오늘) 교중미사 중
- 경과 보고 및 성인유해 조형물 여정 소개
- 전신자 식사나눔: 교중미사 후 평화의 집
- 성시간 및 성체강복: 7월 4일(목)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 병자 영성체: 7월 5일(금) 오전 10시부터
- 교구 파티마 성모님 순례: 7월 7일(주일)~14일(주일) 본당

새서귀포

주임신부 정만영 콜베
사무실 739-9334 Fax.738-9338

- 재무평의회: 7월 3일(수) 저녁미사 후
- 성시간 및 성체강복: 7월 4일(목) 저녁미사 후

- 병자 영성체: 7월 5일(금) 오전 10시 30분
- 생태환경위원회: 7월 7일(주일) 교중미사 후
- 바오로 3기 받아들이는 예식: 7월 7일(주일) 교중미사 중

호 돈

주임신부 정필종 도미니코
사무실 767-2355 Fax.767-0156

- 소공동체협의회: 30일(오늘) 교중미사 후
- 레지오단원들을 위한 미사: 7월 4일(목) 저녁 7시 30분
- 성시간: 7월 4일(목) 저녁미사 후
- 병자 영성체: 7월 5일(금) 오전 9시
- 사목평의회: 7월 7일(주일) 교중미사 후
- 위미공소 성전 건축기금 계좌번호
농협 351-1129-3472-03 효돈성당

남 원

주임신부 서용범 베드로
사무실 764-1712 Fax.764-6100

- 안나회: 30일(오늘) 교중미사 후
- 병자 영성체: 7월 5일(금) 오전 10시 15분
- 사목평의회: 7월 7일(주일) 교중미사 후

표 선

주임신부 양명현 토마
사무실 787-0173 Fax.787-4514

-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식 및 잔치: 30일(오늘) 교중미사 후
- 성시간, 성체강복: 7월 4일(목) 저녁미사 후
- 병자 영성체: 7월 5일(금) 오전 9시 30분
- 성소후원회미사: 7월 5일(금) 저녁미사
- 성모신심미사: 7월 6일(토) 오전 10시
- 데레사회: 7월 7일(주일) 교중미사 후
- 안나회: 7월 7일(주일) 교중미사 후

성산포

주임신부 조학균 베드로
사무실 782-0500 Fax.784-7799

- 사목평의회: 30일(오늘) 교중미사 후
- 병자 영성체: 7월 4일(목) 오전 9시, 7월 5일(금) 오전 9시
- 성시간 및 성체강복: 7월 4일(목) 저녁미사 후
- 성소후원회 미사: 7월 5일(금) 저녁미사
※ 미사 전 묵주기도 있습니다.
- 성모신심미사: 7월 6일(토) 오전 10시

우 도

주임신부 심승우 마르티노
사무실 783-0631 Fax.783-0632

-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8시
주일: 오전 8시 30분
- 평일미사
월: 오전 7시
화/목: 오후 7시
수/금: 오전 10시